

# 美 신용위기, 월가·실물경제 확산

미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금융 위기가 추축하는 조짐을 보여온 상황에서 신용 위기의 '후폭풍'이 월가와 실물 경제에 계속 확산되면서 미국과 전세계 경제에 드리는 먹구름이 쉽게 걷히기 힘들 것임을 뒷받침했다.

월가의 경우 이미 미 당국의 구제를 받은 보험회사 AIG와 모기지 금융기관 페니메이가 막대한 분기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추가 지원책이 발표되거나 곧 취해질 전망이다.

실물경제 타격도 여전히 심각해 미국 2위 가전제품 전문 유통체인인 서킷시티가 자금난을 이기지 못해 10일(이하 현지시간)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서킷시티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도 대규모 납품해왔기 때문에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10일 AIG에 대한 공동 구제안을 발표했다. 새 구제안은 지난 9월 FRB가 마련했던 850억달러의 대출 규모를 600억달러로 줄이는 대신 400억달러를 직접 투입해 AIG의 우

## AIG·페니메이 추가 지원 요청 자금난 서킷시티 파산보호 신청 택배회사 DHL 9,500명 감원

선주를 매입해 정부가 보유하기로 했다. 우선주 매입에 소요되는 400억달러는 미 의회가 지난달 승인한 7천억달러 금융 구제안에서 조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IG는 지난해 3·4분기에는 30억9천만달러의 흑자를 냈다. 7천억달러의 구제 금융안이 마련된 후 비(非)은행 금융기관에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페니메이는 모기지 디폴트 증가와 지속적인 집값 하락에 타격받아 지난 3·4분기 290억달러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10일 발표했다. 페니메이는 지난 2·4분기에 23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3·4분기 적자폭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세액 공제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따라 214억달러를 상각 처리한 것이 최대 원인으로 작용했다.

서킷시티의 경우 10일 파산 보호를 신청하면서 자금이 34억달러, 채무가 29억2천만달러라고 법원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서킷시티의 부채 가운데 전자제품 공급업체에 대해 모두 6억5천만달러의 채무가 있다면서 휴렛 팩커드가 가장 많은 1억1천880만달러, 그리고 삼성전자 1억1천590만달러, 소니 6천만달러, LG전자 4천110만달러 순이라고 보도했다.

서킷시티는 미국에 721개, 캐나다에 770개 매장을 갖고 있는데 최근 베스트 바이나 월마트 등은 물론 온라인 유통업체들과도 경쟁이 격화돼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킷시티가 앞서 발표한 3·4분기 실적은 손실이 한해 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2억3천920만달러였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10일 실물경제 타격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면서 독일 도이체 포스트가 소유한 미국 택배회사 DHL도 미국내 익스프레스 배달망을 없애는 등 9천500명 감원을 발표한 것을 상기시켰다. 또 미국 최대 통신장비회사 노르텔이 1천300명을 줄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로이터는 10일 미국발 불안에도 불구하고 신용시장 비즈니스가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여 타격이 크지 않았던 제너럴 일렉트릭(GE)도 마침내 침체의 영향권에 들어왔다면서 이에 따라 회사가 부여받고 있는 최고 신용등급 AAA를 지키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 부시-오바마 백악관 첫 회동 이모저모



백악관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좌)가 10일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함께 워싱턴 DC의 백악관 남쪽 주랑(柱廊) 현관을 따라 걸으며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 부시, 외국 정상 만나듯 환대

백악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마침내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 첫발을 내디뎠다.

오바마는 지난 9월말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 의회 지도자들과 함께 금융위기에 따른 비상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백악관을 찾은 등 이미 백악관을 방문한 바 있지만 오벌 오피스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 1시간 동안 비공개 회동

미국 국민과 전세계 언론들은 첫 흑인 대통령 당선인의 뜻깊은 백악관 방문을 지켜봤다. <부시-오바마, 첫 단독회동 = 선거일 이후 줄곧 '정치적 교향'인 시카고에 머물러왔던 오바마 당선인은 이날 오후 '에비 영부인'인 미셸과 함께 항공편으로 워싱턴 D.

C.에 '입성'했다. 부시 대통령은 부인 로라 여사와 함께 백악관 건물 남쪽 현관인 '사우스 포터코'로 나와 당초 예정보다 11분 일찍 검은 캐딜락 당선인 전용차를 타고 도착한 오바마 내외를 맞았다. 비록 레드 카펫이나 환영 음악, 의장대 등은 없었지만 부시 대통령이 마치 외국정상을 만나는 듯한 분위기였다.

부시 대통령은 여기서 내린 오바마 당선인과 악수를 교환했고, 미셸은 로라에게 다가가 포옹하며 인사물을 건넸다. 흑백의 차가와 현직 대통령부부가 처음 얼굴을 맞대는 역사적 장면이었다.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당선인은 백악관 복도를 거닐어 오벌 오피스로 향하면서 취재진들에게 손을 흔들며 주는 등 잠시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로라 여사는 미셸에게 대통령 내외 숙소 등 백악관 곳곳을 소개

하며 향후 백악관 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한편, 오바마 당선인의 두 딸은 이날 백악관 초청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차기 대통령 1시간 단독회동 =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당선인은 이날 오벌 오피스에서 1시간 이상 비공개로 회동을 가졌다.

### 등 두드리며 친숙함 과시

한·차기 대통령의 대화내용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대책과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문제, 정권인수문제 등이 주요의제가 됐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이날 오벌 오피스로 향하던 중 오바마 당선인이 왼손으로 부시 대통령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는 등 '친숙함'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 “美·日, 한반도 유사시 작전 전면 재검토” 요미우리 보도

미국과 일본 정부가 한반도, 일본 등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미군과 자위대의 대처 방법 등을 담은 '공동작전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이런 계획 전면 재검토는 2006~2007년에 이어 두번째다. 양국 정

부는 이런 계획의 존재 자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번 주요 검토 내용은 긴급사태 발생시 미군이 사용할 민간 공항과 항만 선정, 비행제한 등을 포함한 공역 관리, 부상 미군병사 이송 및 수송을 위한 의료지원 시스템, 미국이 포로로 잡은 사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사 허용 등을 담고 있다. 또 미군 및 자위대에 의한 전과

우선 이용, 화학·생물·핵무기 공격에 대한 대응, 미·일간의 정보 공유 강화, 미군 방호우선시설 정밀 조사, 상호 후방 보급 지원, 전물자 및 행방불명자 수색 등의 내용도 주요 검토 항목에 포함돼 있다. 북한 김 위원장의 건강악화설이 대두되면서 미·일간 조정 작업도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김정일 지난달 두번째 뇌졸중” 천수이벤 前 대만총통 구속영장

일 TBS 보도 뇌졸중으로 쓰러져 요양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달 하순에 두번째로 뇌졸중을 일으켰다는 정보를 미국 당국이 입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일본 민방 TBS가 11일 보도했다.

인물만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그는 지난달 하순에 두번째로 뇌졸중이 발생해 왼쪽 손과 발에 장애가 발생했으며 대화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뇌신경외과 의사가 중국 베이징을 거쳐 평양에 들어간 시기도 두번째 뇌졸중 발병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고 TBS는 전했다. /연합뉴스

대만 정부 비밀자금인 '국무기요비' 유용 혐의와 해외 돈세탁 혐의를 받고 있는 천수이벤 전 총통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만 검찰은 11일 오후 부정부패 혐의로 전 천 총통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TVBS 등 대만 언론들이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천 전 총통이 체포됐다”면서 “검찰은 타이베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이날 중 천 전 총통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천 전 총통은 영장이 발부될 경우 대만 역사상 전 천 총통으로서 처음으로 구속되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이에 앞서 천 전 총통은 이날 오전 피고인 신분으로 다섯번째로 검찰에 출두해 7시간 동안 강도높은 검찰의 신문을 받았다. /연합뉴스

## 부시 지지율 24% 역대 최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10일 CNN에 따르면 CNN과 오픈리서치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부시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24%에 그

쳤다. 이는 2차대전 후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사상 최저 수준에 해당한다. CNN의 여론조사 담당 책임자인

키팅 홀랜드는 “과거 역대 대통령 가운데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진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으나 부시 대통령은 이미 3차례나 있었다”면서 “이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야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퇴임한 기록했던 지지율 34%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경·공매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법무사 권숙원**  
**공인중개사 김갑순**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23번지 (법원경매 입찰장 앞)**

**법원경매** **친질상담**  
 ☎062)222-8446  
 H.010-3666-8446

▶근린시설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중앙동	154/416	14억3000만	7억8000만
우산동	127/1431	67억2000만	47억
우산동	188/193	10억2000만	5억9000만
중앙동	146/400	12억7000만	7억1000만
중앙동	137/223	8억1000만	3억5000만
중앙동	362/893	41억4000만	28억5000만
중앙동	1139/1959	111억1000만	62억2000만
누전동	40/94	4억9000만	2억4000만
▶주목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백운동	48/35	9740만	5450만
오산동	43/50	1억3000만	7500만
중동동	41/22	7200만	2600만
신원동	146/31	7100만	7100만
용동	150/20	7800만	7800만
소촌동	58/55	8800만	3800만
광곡동	176/87	4900만	2700만
금곡동	116/56	1억4000만	8200만
광명동	246/39	8300만	8300만
고서동	186/81	1억5000만	7400만
정자동	101/34	1억	7000만
계림동	55/22	8200만	4600만
▶아파트			
소재지	평형	총 면적(㎡)	감평가
신원동	호반차	15층 34	1억5800만
진원동	천당골	9층 34	1억1000만
진원동	천당골	4층 28	1억9000만
신원동	리안리츠	7층 22	3500만
신원동	그린	18층 24	8700만
마곡동	삼익	8층 32	9000만
문흥동	중흥	7층 32	9000만
하정동	리안동산	7층 32	9800만
금호동	해광대	2층 31	9100만
두암동	그린	13층 33	1억1000만
▶토지			
소재지	필도	면적	감평가
하동	대지	625	7억2000만
용봉동	대지	203	7억3000만
동원동	대지	248	3억8000만
본악동	전	558	1억1000만
죽동	전	591	3억7000만
다시동	전	783	2900만
병현동	담	1058	4500만
금현동	구수원	2600	9억1000만
대곡동	구수원	1362	8200만
원광동	담	822	2700만
▶공장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용동	1565/688	23억2200만	16억2520만
운수동	634/185	11억5000만	8억9000만
노안동	607/443	5억1400만	2억8800만
삼계동	1049/213	2억7210만	1억8050만
둔동	1248/641	7억770만	4억9540만
▶농가편의시설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곡성동	439/222	9400만	4230만
불산동	382/226	1억5000만	1억5000만
문곡동	738/410	2억4650만	1억1000만
무성동	720/233	1억1000만	7720만
▶오아시스/다세대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차정동	11.8	8000만	4480만
차정동	47.4	3억3000만	1억8480만
월산동	13.7	8600만	4620만
차정동	8.8	5500만	3850만
수주동	9.1	4300만	2400만
용봉동	44.9	2억1000만	1억4000만
산하동	25.8	1억3000만	8000만
▶농가편의시설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곡성동	439/222	9400만	4230만
불산동	382/226	1억5000만	1억5000만
문곡동	738/410	2억4650만	1억1000만
무성동	720/233	1억1000만	7720만

**생양동** 대154/건416 감평가4억4천 최저가17억8600만  
**오아시스/편의3개**

**용봉동** 대138/건223 감평가16억2000만 최저가13억4700만  
**식당/사무실**

**오차동** 대152/건588 감평가16억6000만 최저가12억3000만  
**5층상가/대리**

**산양동** 전용면적30 감평가1억5700만 최저가1억1000만  
**근린상가/8층화원**

**운수동** 대305/건23 감평가7억2100만 주유소용지  
**주유기/세차기**

**인행동** 대1000/건635 감평가5억2000만 최저가1억96400만  
**공정/하남공단지**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iElysia

**송년회에약점수중** 돌잔치, 세미나, 각종 모임 및 행사(100석부터, 50석×2룸 완비)

아이엘리시아 고객 입맛은 요리하는 우리를 항상 긴장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요리를 먹을 줄 아는 미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된 마음과 서비스로 대기업에 밀리지 않는 특한 향토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회원카드 혜택** ■아이엘리시아 회원 가입 즉시 5,000포인트 자동 지급  
 자세한 사항은 www.ielysia.com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류 성 호**

코스	이용 시간	평일	주말(공휴일)
런치 뷔페	〈평일〉 12:00~15:30 〈주말〉 11:30~15:30	19,000원	24,000원
디너 뷔페	〈평일〉 18:00~22:00 〈주말〉 17:30~22:00	24,000원	29,000원

※ 상가 가격은 10% 푸기사 별도 금액입니다.

**www.ielysia.com**  
**062)671-1199**  
**15% 할인권**  
 ▶유료기간: 2008년 11월 15일부터 2009년 1월 15일까지  
 ※ 한정권, 가장자리 10%까지  
 15% 할인(최대 1000원까지)  
 (4인 이하만)